

경찰부패 인식도 연구: 경찰공무원을 중심으로

A study on police corruption of perception index: with focused on police officers

김 택(Kim, Taek)*

ABSTRACT

Police corruption in the past has been attributed to the deviations of the lower police officers, but in recent years, police corruption has been characterized by both senior police officers and subordinate police officers. Police Corruption is involved and structural corruption is rampant Problems.

This Study focuses that to make perceptions of peoples towards corrupted cops behaviors according to various situational factors:1) meanings of corruption 2) individual factors 3) socio-organizational factors 3)legal- legislative factors 4)demographic factors.

First, the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police officers' perceptions of corruption on corruption perception showed that impulse and bribery positively affected corruption perception, while greed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corruption perception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s of individual factors on perception of corruption, ethics a wareness and impulsiveness positively affected corruption perception, while greed and integrity educ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orruption perception.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fluence of police officers' organizational cultural factors on perception of corruption, cheating culture had a positive effect on perception of corruption, while negative culture affected negatively on perception of corruption. In addition, the culture of recruitment and bureaucracy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ception of corruption.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legal institutional factors on perception of corruption, the level of police punishment positively influenced perception of corruption, while human transparency had a negative effect on corruption perception. Also, the possibility of controlling corruption and discre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orruption perception.

This Paper focuses on Police officer perception on the police corruption. To conclude, this paper will be perceived police corruption difference between the police and citizen. so we make effective policy agenda and policy making.

Key words: Police officer Corruption, Corruption Perception Index, Organizational Cultural Factor, Legal Institutional Factors, Police Punishment

*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I. 서론

1. 연구목적

지난 1945년 10월 미 군정청에 경찰국이 창설되면서 국립경찰의 모태가 된 한국경찰은 국가 안보와 치안 유지에 많은 기여와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민중의 파수꾼이자 거리의 재판관이라고 일컫는 경찰조직은 신뢰와 공권력의 상징이고 지역주민의 커뮤니티폴리싱(community policing)을 구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진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수뇌부, 경찰간부, 일선 경찰관들의 부패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고 경찰서비스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부패문제를 인식함과 함께 국가통합과 불신을 가로막고 있는 경찰부패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통제전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선 경찰관들의 부패요인을 분석하고 가설검증을 통해 경찰부패의 인식도와 영향에 관하여 유의성과 시사점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김택,1999)

이 논문에서는 현직 경찰공무원을 중심으로 공직부패, 공직부패유형, 방지방안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직 경찰공무원의 부패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부패 인식도를 고찰하였다. 부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셋째, 경찰관 부패인식도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고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등을 통해 경찰부패를 분석하였다.

2. 선행연구의 분석

일반적 관료부패를 연구한 김영중(1996)의 부패학과 전수일(2000)의 관료부패론은 공직부패의 원인과 유형별 대안을 선구적으로 제시했다고 본다. 먼저 김영중(1996)은 아시아 국가의 반부패정책을 비교하였으며, 관료부패 원인분석을 통합적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에 적절한 반부패 대안을 창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수일은 다양한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관료부패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연성진(1999)의 국무총리실 “경찰부패연구보고서”는 경찰 조직 전 분야에 대하여 경찰부패의 원인과 대책을 제시했는데, 일선 경찰관의 실증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그 대책을 제시했다. 최상일(2006)의 “경찰부패 통제전략 효과성연구”는 계층절차의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부패통제 전략들 간 상대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통제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형수(2009)의 “경찰공무원 부패인식연구”는 경찰부패 영향요인을 분석하였고 경찰부패의 통제요인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경찰관의 윤리와 책임, 일탈, 부패 등을 연구한 조철옥의 “경찰윤리학연구”(2012)는 경찰관으로서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가 경찰에 대한 신뢰 상실의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했으며 바람직한 경찰윤리를 정립하기 위해 동서양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그 특징과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가 경찰부패의 시민인식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은 점이 지적된다. 박상주는 ((2006)경찰 공무원 부패의 발생조건과 그 통제전략에 관하여, 부패연구의 경제 분석적 관점의 하나인 Shleifer와 Vishny의 모형을 응용하여, 경찰 분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패 유형화 모형을 형성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논문의 기본적 주장은 경찰부패를 통제하는데 있어, 우선 경찰부패에 대한 적절한 유형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련의 부패통제 전략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보다 더 맞춤형의(customized) 반부패 전략과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패거래에 있어 민간인 측의 부패유인을 결정하는 차원으로 “도둑질 있는 부패이나 도둑질 없는 부패이나,” 그리고 경찰 측의 부패유인을 결정하는 차원으로 “사전 능동적 활동영역이나 사후 피동적 활동영역이나”를 기준으로 경찰부패의 유형화 모형을 작성하였고, 이를 관련 사례에 적용하고 정책함의를 제시하였다.윤태범은 (2001)경찰부패의 부패구조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업무와 부패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경찰부패 유형을 klitgaard의 모델을 응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수일은(2001) 경찰부패사례에 대해 연결망이론을 적용하여 부패의 유형과 반부패 정책방향을 분석하였는데 경찰부패중 대표적인 풍속영업이나 교통,사건관련비리를 연결노드를 중심으로 부패가담자와 연결자를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외국학자의 응용은 해석방법상의 차이가 있고 한국현실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전수일의 연결망이론연구는 그 유형 규명은 타당하지만 효과적 통제방법은 용이 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김택,2016)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모형과 가설 설정을 분석하는데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김택의 경찰부패인식도(2016), 남형수(2009)의 “경찰공무원 인식연구”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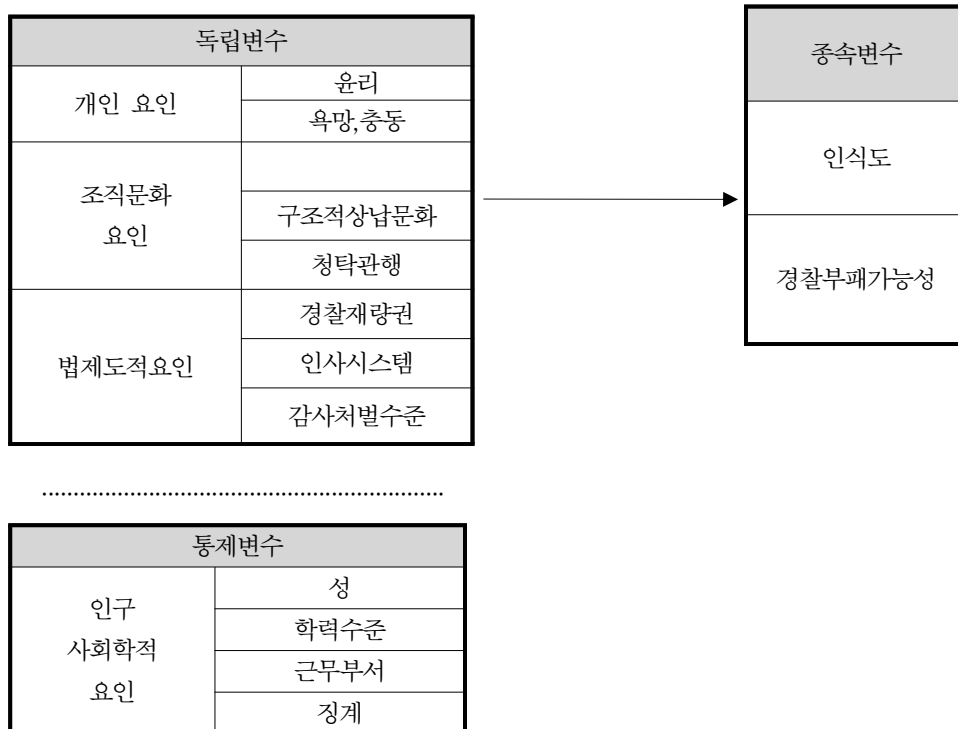
II. 경찰부패연구의 분석

1. 조사 분석 모형과 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는 현직경찰관들의 부패인식도를 분석하기 위해 개인적 요인, 조직 문화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을 대별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개인적 요인에는 경찰관의 윤리의식이나 욕망 충동성 등에 초점을 두었다. 경찰조직문화로는 조직의 구조적 상납과 청탁문화를 조명하였다. 법제도적 요인으로는 경찰이 가진 재량권, 경찰의 인사시스템, 감사처벌기준 등이 독립변수로 설계되었고 종속변수로는 경찰관의 부패인식과 부패 가능성이 모형으로 제공되었다. (도표2-1)

도표2-1. 연구분석 틀



2)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기존의 경찰부패의 시민인식도 선행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김택, 2016)

가)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은 윤리의식, 탐욕, 윤리교육이나 청렴교육 등이다.

나) 조직 문화적 요인

시민인식도 연구의 뇌물문화, 알선 및 청탁문화 등을 고려하였다.

다) 법제도적 요인

경찰처벌, 경찰규제나 재량권, 경찰보수, 경찰인 사 등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김택, 2016)

라) 경찰부패 요인(김택,2016)

[연구문제 1] 경찰부패의 경찰관 개개인의 부패 차이가 있는가?

[가설1-1] 경찰 개인요인

[가설1-1-1] 경찰윤리의식이 낮으면 경찰관 부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2] 경찰개인의 탐욕이 높으면 경찰공무원부패가 많을 것이다.

[가설1-1-3] 경찰관 개개인의 부패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는 경우 경찰공무원부패가 많을 것이다.

[가설1-1-4] 경찰 윤리교육이나 청렴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청렴도향상에 기여한다고 본다.

[연구문제 2] 경찰부패의 조직 문화적 요인은 무엇인지 또 그 차이가 있는가?

[가설2-2] 조직 문화적 요인

[가설2-2-1] 경찰부패는 민원인이 청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가설2-2-2] 경찰 조직 내 동료의 부패나 뇌물수수에 관용적인 조직문화가 있으므로 부패가 발생한다.

[가설2-2-3] 경찰조직내의 청탁문화와 관용문화가 부패를 조장한다.

[가설2-2-4] 경찰조직의 권위주의적 명령만능의 관료문화가 부패를 조장한다.

[연구문제 3] 한국경찰부패의 법률적 제도적 요인 차이는 무엇인가?(김택,2016)

가설3-3 법적 제도적 요인

[가설3-3-1] 경찰반부패 가능성을 인식하는 경찰관일수록 부패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가설3-3-2] 경찰은 경찰의 재량권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찰관일수록 부패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3-3-3] 경찰부패시 징계처벌이 약하다고 인식하는 경찰관일수록 부패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가설3-3-4] 경찰인사가 불투명하고, 보수가 적을수록 부패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3) 표본추출과 분석방법

경찰관의 부패인식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서울, 경기도, 충청도 현직 경찰관 181명을 조사하였고 설문조사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실시하였다.

본문의 자료 분석방법은 부패요인과 부패인식도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인구사회학적 부패요인과 인식도를 검증하고자 T-test를 실시하였고 경찰관의 재직기간,계급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분포

1) 인구통계학적 분석

전체 181명의 설문조사 대상자 중에서 남자가 174명(96.1%)로 여자 7명(3.9%)보다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49세가 100명(55.2%)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반면에, 20-29세는 5명(2.8%)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 분포는 전체적으로 40-49세, 50세 이후, 30-39세, 20-29세 순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위별 분포를 보면 경위가 91명(50.3%)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반면에, 경정 이상은 1명(0.6%)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직위별 분포는 전체적으로 경위, 경사, 경감, 경장, 순경, 경정 이상 순으로 분포를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충청이 110명(60.8%)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서울/경기가 70명(38.7%), 기타 1명(0.6%)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재직기간별 분포를 보면 15년 이상-20년 미만이 50명(27.6%)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반면에, 30년 이상은 4명(2.2%)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재직기간은 전체적으로 15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25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25년 이상-30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년 이상-5년 미만, 30년 이상 순으로 분포도의 차이를 보였다. 임용형식별 분포를 보면 공개채용이 162명(89.5%)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경찰대 13명(7.2%), 특별채용 5명(2.8%), 기타 1명(0.6%)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근무기간별 분포를 보면 경찰서가 125명(69.1%)으로 많은 분포를 보인 반면에, 타기관 파견은 2명(1.1%)으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였다. 근무기간별 분포는 전체적으로 경찰서, 파출소, 지방청, 기타, 타기관 파견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학력별 분포를 보면 대졸이 83명(45.9%)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고졸이 45명(24.9%), 전문대졸 44명(24.3%), 대학원 이상 9명(5.0%)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표3-1 참조)

〈표 3-1〉 경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174	96.1
	여자	7	3.9
연령	20-29세	5	2.8
	30-39세	33	18.2
	40-49세	100	55.2
	50세 이후	43	23.8
직위	순경	6	3.3
	경장	9	5.0
	경사	64	35.4
	경위	91	50.3
	경감	10	5.5
	경정이상	1	0.6
지역	서울/경기	70	38.7
	충청	110	60.8
	기타	1	0.6
합계		181	100.0

구분		빈도	백분율(%)
재직기간	1년 이상-5년 미만	7	3.9
	5년 이상-10년 미만	21	11.6
	10년 이상-15년 미만	31	17.1
	15년 이상-20년 미만	50	27.6
	20년 이상-25년 미만	40	22.1
	25년 이상-30년 미만	28	15.5
	30년 이상	4	2.2
임용형식	공개채용	162	89.5
	특별채용	5	2.8
	경찰대	13	7.2
	기타	1	0.6
근무기관	지방청	16	8.8
	경찰서	125	69.1
	파출소	30	16.6
	타기관 파견	2	1.1
	기타	8	4.4
학력	고졸	45	24.9
	전문대졸	44	24.3
	대졸	83	45.9
	대학원 이상	9	5.0
합계		181	100.0

2. 연구가설 검증

1) 경찰

(1) 부패의미기준

부패의미기준과 부패인식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금전에 대한 개인적 탐욕이나 동료의 묵인을 부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경찰관으로서 부패가능성이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1-1을 설정하였고, “소액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은 경우에 부패라고 인식하고 부패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1-2를 설정하였다. 또한 “금품수수의 경우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어야 부패라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가설1-3을 설정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1-1, 가설1-2, 가설1-3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부패의미기준의 하위변인으로 탐욕, 충동성, 금품수수 등의 변수가 설명변수로 연구모형에 투입되었고, 종속변수로 부패인식의 변수를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부패의미기준이 부패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충동성과 금품수수가 부패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탐욕은 부패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충동성($b=0.30$, $t=2.36$, $p<.05$), 금품수수($b=0.41$, $t=3.46$, $p<.01$)은 부패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에, 탐욕은 부패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부패의미기준이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8.0%이고, 본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F=5.16$, $p<0.01$)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경찰의 부패의미기준으로 소액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은 경우에 부패라고 인식하고 부패가능성이 높게 나타날 것이며, 또한 금품수수의 경우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어야 부패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설1-2, 가설1-3은 채택된 반면에, 가설1-1은 기각되었다.(표3-2)

〈표 3-2〉 부패의미기준이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경찰)

가설	변수 (Variables)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 회귀계수 (Beta)	t값 (t)	유의도 (p)
	상수항	0.90	0.73		1.22	0.222
가설1-1	탐욕	0.08	0.14	0.04	0.57	0.567
가설1-2	충동성	0.30	0.13	0.17	2.36	0.019**
가설1-3	금품수수	0.41	0.12	0.25	3.46	0.001***
설명력 (R ²)		0.080				
조정설명력 (Adj. R ²)		0.065				
사례수 (N)		181				
F값 (F)		5.163				
유의도 (p)		0.002***				

*** $P<0.01$, ** $P<0.05$, * $P<0.10$

(2) 경찰부패 요인

가. 개인적 요인

경찰의 개인적 요인과 부패인식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윤리의식이 낮으면 경찰관 부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2-1-1을 설정하였고, “개인의 탐욕이 높으면 경찰공무원부패가 많을 것이다.”라는 가설2-2-2을 설정하였다. 또한 “경찰관 개개인의 부패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는 경우 경찰공무원부패가 많을 것이다.”라는 가설2-1-3을 설정하였고, “경찰 윤리교육이나 청렴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본다.”라는 가설2-1-4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2-1-1, 가설2-2-2, 가설2-1-3, 가설2-1-4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개인적 요인의 하위변인으로 윤리의식, 탐욕, 충동성, 청렴교육 등의 변수가 설명변수로 연구모형에 투입되었고, 종속변수로 부패인식의 변수를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개인적 요인이 부패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윤리의식과 충동성이 부패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탐욕과 청렴교육은 부패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윤리의식($b=-0.34$, $t=-2.63$, $p<.01$), 충동성($b=-0.62$, $t=-5.19$, $p<.01$)은 부패인식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친 반면에, 탐욕과 청렴교육은 부패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인적 요인이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5.7%이고, 본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F=8.21$, $p<0.01$)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윤리의식이 낮으면 경찰관 부패에 영향을 미치며, 경찰관 개개인의 부패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는 경우 경찰공무원부패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가설2-1-1, 가설2-1-3은 채택된 반면에, 가설2-2-2, 가설2-1-4는 기각되었다.(표3-3)

〈표 3-3〉 개인적 요인이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경찰)

가설	변수 (Variables)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 회귀계수 (Beta)	t값 (t)	유의도 (p)
	상수항	5.75	0.76		7.52	0.000***
가설2-1-1	윤리의식	-0.34	0.13	-0.18	-2.63	0.009***
가설2-2-2	탐욕	0.14	0.13	0.08	1.13	0.256
가설2-1-3	충동성	-0.62	0.12	-0.36	-5.19	0.000***
가설2-1-4	청렴교육	0.00	0.10	0.00	-0.00	0.999

설명력 (R ²)	0.157
조정설명력 (Adj. R ²)	0.138
사례수 (N)	181
F값 (F)	8.216
유의도 (p)	0.000***

*** P<0.01, ** P<0.05, * P<0.10

나. 조직 문화적

조직문화와 부패인식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찰부패는 시민들이나 업자가 청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가설2-2-1을 설정하였고, “동료의 부패나 뇌물수수에 관용적인 조직문화가 있기에 발생한다.”라는 가설2-2-2를 설정하였다. 또한 “경찰의 알선청탁문화와 봐주기 문화가 부패를 조장한다.”라는 가설2-2-3을 설정하였고, “경찰조직의 권위주의적이고 계층제 관료문화가 부패를 조장한다.”라는 가설2-2-4를 설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2-2-1, 가설2-2-2, 가설2-2-3, 가설2-2-4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조직 문화적 요인의 하위변인으로 청탁문화, 상납문화, 알선청탁문화, 관료문화 등의 변수가 설명변수로 연구모형에 투입되었고, 종속변수로 부패인식의 변수를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조직 문화적 요인이 부패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청탁문화는 부패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상납문화는 부패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알선청탁문화와 관료문화는 부패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청탁문화($b=0.71$, $t=7.08$, $p<.01$)는 부패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에, 상납문화($b=-0.40$, $t=-3.08$, $p<.01$)는 부패인식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직 문화적 요인이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4.7%이고, 본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F=14.45$, $p<0.01$)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경찰의 경찰부패는 시민들이나 업자가 청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동료의 부패나 뇌물수수에 관용적인 조직문화 때문에 부패인식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설2-2-1, 가설2-2-2는 채택된 반면에, 가설2-2-3, 가설2-2-4는 기각되었다.(표3-4)

〈표 3-4〉 조직 문화적이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경찰)

가설	변수 (Variables)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 회귀계수 (Beta)	t값 (t)	유의도 (p)
	상수항	2.07	0.53		3.86	0.000***
가설2-2-1	청탁문화	0.71	0.10	0.48	7.08	0.000***
가설2-2-2	상납문화	-0.40	0.13	-0.21	-3.08	0.002***
가설2-2-3	알선청탁문화	-0.01	0.10	-0.00	-0.10	0.918
가설2-2-4	관료문화	0.11	0.11	0.07	1.03	0.304
설명력 (R ²)		0.247				
조정설명력 (Adj. R ²)		0.230				
사례수 (N)		181				
F값 (F)		14.455				
유의도 (p)		0.000***				

*** P<0.01, ** P<0.05, * P<0.10

다. 법제도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과 부패인식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패통제 가능성이 인식하는 경찰관일수록 부패가능성이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2-3-1을 설정하였고, “경찰은 재량권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찰관일수록 부패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2-3-2를 설정하였다. 또한 “징계처벌이 약하다고 인식하는 경찰관일수록 부패가능성이 낮을 것이다.”라는 가설2-3-3을 설정하였고, “인사가 불투명하고, 보수가 적을수록 부패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2-3-4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2-3-1, 가설2-3-2, 가설2-3-3, 가설2-3-4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법제도적 요인의 하위변인으로 부패통제가능성, 재량권, 경찰처벌수준, 인사투명성 등의 변수가 설명변수로 연구모형에 투입되었고, 종속변수로 부패인식의 변수를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법제도적 요인이 부패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찰처벌수준은 부패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인사투명성은 부패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패통제가능성과 재량권은 부패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경찰처벌수준($b=0.18$, $t=2.05$, $p<.05$)은 부패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에, 인사투명성($b=-0.55$, $t=-4.87$, $p<.01$)은 부패인식에 유의한 부(-)

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법제도적 요인이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9.8%이고, 본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F=10.86$, $p<0.01$)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징계처벌이 약하다고 인식하는 경찰관일수록 부패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징계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반부패 인식도도 높다는 것이다. 반면에, 인사가 불투명하고, 보수가 적을수록 부패가능성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설2-3-3, 가설2-3-4는 채택된 반면에, 가설2-3-1, 가설2-3-2는 기각되었다.(표3-5)

〈표 3-5〉 법제도적 요인이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경찰)

가설	변수 (Variables)	비표준화 회귀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 회귀계수 (Beta)	t값 (t)	유의도 (p)
	상수항	3.12	0.60		5.17	0.000***
가설2-3-1	부패통제가능성	0.17	0.13	0.09	1.35	0.177
가설2-3-2	재량권	0.21	0.12	0.13	1.78	0.077*
가설2-3-3	경찰처벌수준	0.18	0.09	0.13	2.05	0.041**
가설2-3-4	인사투명성	-0.55	0.11	-0.35	-4.87	0.000***
설명력 (R ²)		0.198				
조정설명력 (Adj. R ²)		0.180				
사례수 (N)		181				
F값 (F)		10.865				
유의도 (p)		0.000***				

*** $P<0.01$, ** $P<0.05$, * $P<0.10$

3)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부패인식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인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부패요인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가설3을 설정하였다. 가설3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라 부패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3-1, “연령에 따라 부패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3-2, “직위가 부패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3-3, “근무경력에 따라 부패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3-4, “학력에 따라 부패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가설3-5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3-1, 가설3-2, 가설3-3, 가설3-4, 가설3-5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부패인식에 대해서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 연령, 학력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에, 직위, 근무경력 등은 부패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패인식에 대해서 연령 중에서 40-49세 ($M=3.38$, $SD=21.5$)가 가장 높은 평균값의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은 전체적으로 40-49세, 50세 이후, 20-29세, 30-39세 순으로 평균값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력에 대해서 전문대졸 ($M=3.70$, $SD=1.46$)이 가장 높은 평균값의 차이를 보였으며, 학력은 전체적으로 전문대졸, 대졸, 고졸, 대학원 이상 순으로 평균값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경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연령, 학력은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비해서 부패인식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설3-1, 가설3-5는 채택된 반면에, 가설3-2, 가설3-3, 가설3-4는 기각되었다.(표3-6)

〈표 3-6〉 부패인식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간 차이(경찰)

가설	구분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t/F	p
가설3-1	성별	남자	174	3.13	1.54	1.50	0.134
		여자	7	2.23	1.64		
	연령	20-29세	5	2.40	1.53	4.35	0.005***
		30-39세	33	2.33	1.43		
		40-49세	100	3.38	1.49		
		50세 이후	43	3.11	1.61		
가설3-2	직위	순경	6	3.16	1.36	0.65	0.656
		경장	9	2.74	1.92		
		경사	64	3.27	1.46		
		경위	91	3.05	1.60		
		경감	10	2.90	1.53		
		경정이상	1	1.00			
가설3-3	근무경력	1년 이상-5년 미만	7	2.85	1.48	1.94	0.077*
		5년 이상-10년 미만	21	2.23	1.44		
		10년 이상-15년 미만	31	3.06	1.48		
		15년 이상-20년 미만	50	3.45	1.40		
		20년 이상-25년 미만	40	3.21	1.59		
		25년 이상-30년 미만	28	3.20	1.75		
		30년 이상	4	2.08	1.42		
가설3-4	학력	고졸	45	2.94	1.65	3.43	0.018**
		전문대졸	44	3.70	1.46		
		대졸	83	2.94	1.45		
		대학원 이상	9	2.37	1.75		

I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의 요약

첫 번째로는 경찰관의 부패인식에 대해서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 연령, 학력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에, 직위, 근무경력 등은 부패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패인식에 대해서 연령 중에서 40-49세($M=3.38$, $SD=21.5$)가 가장 높은 평균값의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은 전체적으로 40-49세, 50세 이후, 20-29세, 30-39세 순으로 평균값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력에 대해서 전문대졸($M=3.70$, $SD=1.46$)이 가장 높은 평균값의 차이를 보였으며, 학력은 전체적으로 전문대졸, 대졸, 고졸, 대학원 이상 순으로 평균값의 차이를 보였다.

두 번째는 경찰관의 부패의미기준이 부패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충동성과 금품수수가 부패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탐욕은 부패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세 번째는 개인적 요인이 부패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윤리의식과 충동성이 부패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탐욕과 청렴교육은 부패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네 번째는 경찰관의 조직 문화적 요인이 부패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청탁문화는 부패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상납문화는 부패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알선청탁문화와 관료문화는 부패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다섯 번째로는 법제도적 요인이 부패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찰처벌수준은 부패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인사투명성은 부패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패통제가능성과 재량권은 부패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2. 연구결과의 시사점

지금까지 경찰관의 부패인식과 영향을 고찰하였다. 경찰부패의 인식도, 원인 및 방안 등을 연구하였는데 부패는 단시일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중장기 반부패 정책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경찰부패의 경우 첫째, 경찰관들의 금품수수가 부패인식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경찰관 개개인의 탐욕과 욕망은 부패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의 뇌물죄 징계나 처벌의 강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금품수수방지를 위해 형사사건, 교통, 조사 등의 매뉴얼을 만들어 기준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윤리의식이 낮으면 경찰관 부패에 영향을 미치며, 경찰관 개개인의 부패를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는 경우 경찰공무원부패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 윤리교육이나 청렴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청렴교육이나 윤리의식강화 교육을 통해 공직윤리의 제고를 하여야 한다.

셋째, 경찰의 경찰부패는 시민들이나 업자가 청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동료의 부패나 뇌물수수에 관용적인 조직문화 때문에 부패인식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청탁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정청탁금지법의 실질적 강화를 통해 청탁근절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부패통제가능성, 재량권, 경찰처벌수준, 인사투명성 등은 부패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연령, 학력은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비해서 부패인식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국민권익위원회, 2009-2016년 자료
경찰청(2012-15), 경찰백서
경찰청(2012), 경찰채신위원회, 경찰채신권고안,30쪽
김택(2016), “경찰공무원 부패의 시민인식도에 관한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1권 3호159-182쪽, 한국부패학회
김택(2016), “경찰공무원 부패의 시민인식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학박사학위논문, 2016, 2월
김택(1999), 경찰공무원의 부패에 관한 연구, 부패학회보, 3호, 1999
김해동(1978), “한국관료형태의 전통 문화적 요인,” 행정논총 제16권1호, 57-68쪽
남형수(2009), “경찰공무원의 부패인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박사학위논문, 2009
동아일보, 2010.4.19., 1996.1.16
박상주(2006), “경찰부패 유형분석과 함의: shleifer,vishny를 응용” 한국행정연구 15권 3호, 331-367면
연성진(1999),국무조정실 경찰부패연구보고서 “경찰분야 부패방지 대책”
윤일홍(2009), “경찰비리에 대한 경찰관의 견해 연구, 장기유학훈련 연구 보고서, 행정안전부 교육훈련정보센터, 6쪽
유중해.김택(2010), 행정의 윤리, 박영사, 187쪽.
조철옥(2012), 경찰윤리학, 대영문화사

2. 외국문헌

- Bayley, David H., “The Effects of Corruption in a Developing Nations,” Western Political Quality, vol.12, no.4(December 1966)
Gerald E. Caiden & Naomi J. Caiden, “Administrative Corrup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37, No.3 (1997), pp.306-308.
Gennaro F.Vito et al. Police Integrity: Rankings of Scenarios on the klocars scale, “Management Cops”, 2011
G. Myrdal, Asian Drama (N.Y. : Pantheon Books), 1968, pp 200-210.

투고일자 : 2017. 02. 27

수정일자 : 2017. 03. 30

게재일자 : 2017. 03. 31

<국문초록>

경찰부패 인식도 연구: 경찰공무원을 중심으로

김택

공직부패는 개발연대에서는 순기능의 역할이 용인되었지만 오늘날 그 폐해와 역기능이 심각해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 경찰부패는 하위경찰관들의 일탈에서 비롯되었지만 최근 경찰부패의 특성은 고위경찰간부와 하위경찰관 모두 부패에 연루되어 구조적으로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본다.

이번 경찰부패 연구는 현직 경찰관들의 부패를 연구하고자 실태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는 180여명의 현직경찰관들을 조사하였다. 이번 연구는 지난번 시민들 대상으로 조사한 후속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직경찰관과 시민들의 부패인식과 원인분석을 강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경찰관의 부패의미기준이 부패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충동성과 금품수수가 부패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탐욕은 부패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두 번째는 개인적 요인이 부패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윤리의식과 충동성이 부패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탐욕과 청렴교육은 부패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세 번째는 경찰관의 조직 문화적 요인이 부패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청탁문화는 부패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상납문화는 부패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알선청탁문화와 관료문화는 부패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네 번째로는 법제도적 요인이 부패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찰처벌수준은 부패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인사투명성은 부패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패통제가능성과 재량권은 부패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주제어: 경찰관부패, 부패인식도, 조직 문화적 요인, 법제도적요인, 경찰처벌